

# 20

BIFAN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016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일간지

〈위대한유산〉 장근석 감독

〈마냥 비링의 크리스마스〉 카를 조셉 파파 감독

〈라이브 프롬 올란바토르〉 밴드 모하닉

장르 영화를 배우다  
환상 영화 학교

2016.07.27  
WED

07

시네마

# MY ONE supplementary BATTERY

Re:QM



Re:Pet



me.mine



RE:  
ART



  
<http://www.ororamall.com>

 WATCHA PLAY

왓차플레이  
첫달무료

영화드라마  
무제한감상

어디에서나  
이피타  
디블렛

GET IT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WATCHPLAY.NET



# BIFAN BOARD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 판타스틱한 단편들의 시간

7월26일 오후 2시30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상영 후 GV가 열렸다. GV에는 <장례희망>의 이남강 감독과 배우 장유, 김영선, 남상욱, <위대한유산>의 장근석 감독, 배우 노형욱이 참석했다. 감독으로는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나?>(2012) 이후 두 번째 연출자인 장근석은 “차츰 멀어지는 가족 간의 관계와 뒤늦게 후회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연출의 변을 밝혔다.



이남강 감독, 배우 남상욱, 김영선, 장유, 장근석 감독, 배우 노형욱(왼쪽부터).



## 영화 근로자의 현실을 속속들이 말하다

7월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 ‘열린토론: 영화스타프의 새삼스런 커밍아웃: 우리 근로자대!’가 열렸다. 영화 산업의 근로 환경에 대해 논하는 이번 토론에는 다양한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종원 BIFAN 부집행위원장은 “영화제가 영화인들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소외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씨네21 오계욱

B.I.G(BIFAN Industry Gathering)의 '코리아 나우' 프로그램 중 하나인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



## 참신한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오리진얼 시나리오 창작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 피칭 행사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공동 주최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BIFAN의 산업적 기능과 한국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경쟁력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신한 시나리오에 목말랐다면 주목하자. 7월27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 윤종신, 김이나와 함께 하는 영화 뒷담화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 <사무라이 픽션> 스페셜 토크가 7월26일 오후 5시(사무라이 픽션) 상영 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렸다. 토크 게스트로 초청된 가수 윤종신은 “평소(주인공 카자마츠리를 연기한) 호테이 토모야스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지만 키 차이는 많이 난다”는 재치 있는 멘트로 토크의 포문을 열었다. 나카노 히로유키 감독이 연출한 독특한 화면스타일과 호테이가 참여한 영화 O.S.T 작업에 대한 해석이 오간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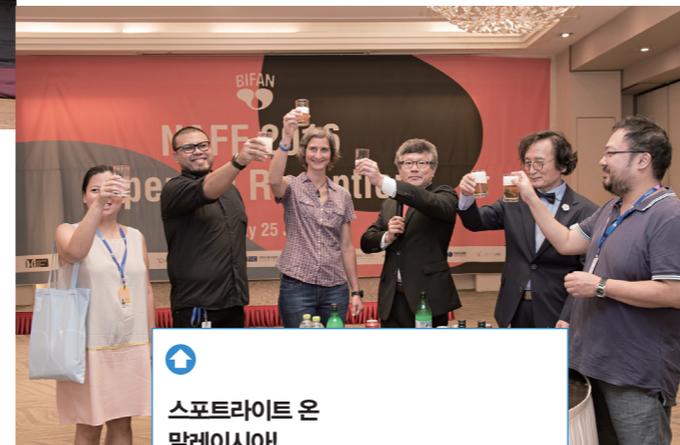
## 사무라이 픽션 Samurai Fiction

윤종신(가수) | 김이나(작사가) | 이화정(씨네21 기자)  
YOON Jongshin (Singer) | KIM Eana (Lyricist) | LEE Hwajung (Reporter)



이화정 기자, 가수 윤종신, 작사가 김이나(왼쪽부터).

캐서린 리 프로듀서, 조코 안와르 감독, 아닉 매넬트 프로듀서, 최용배 집행위원장, 정지영 조직위원장, 임필성 감독(왼쪽부터).



씨네21 오계욱



## 스포트라이트 온 말레이시아!

지난 22일 시작한 B.I.G(BIFAN Industry Gathering)가 벌써 중반을 향하고 있다. 7월27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에서는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로 선정된 말레이시아의 작품을 소개하는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피칭’ 행사가 열린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다섯 편의 프로젝트는 국내외 투자, 제작, 배급사 관계자와 개별 비즈니스 미팅의 기회를 가지고, 우수 프로젝트로 뽑히면 현금 제작비 혹은 후반 작업 지원을 받는다. 오후 7시에는 고려호텔 2층에서 말레이시아 리셉션이 예정돼 있다.

## 말.말.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전부 내 팬이라 생각하고 답변하겠다.”  
\_<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GV 중 <장례희망> 이남강 감독. 함께 무대에 오른 장근석 감독 덕분에 객석이 짹 차서 감사하다며.

“영화는 관객을 통해 완성된다. 여러분과 만나 지난 GV와는 또 다른 영화가 태어났다.”  
\_<나나 포에버> GV 중 벤 블레인 감독.

“원수에게 복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 ‘감독의 꿈을 심어준다’고 적었다.”  
\_<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스페셜 토크 중 장철수 감독. 데뷔작을 연출하기까지 감독으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 20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07

2016.7.27

## EVENT

- 16:00 U-Plex 중앙광장 무브먼트 - 딜라이트피플
- 16:30 U-Plex 중앙광장 무브먼트 - HeMeets
- 17:20 부천시청 어울마당 스페셜 토크 - <지구를 지켜라> 상영 후 진행. 게스트: 장준환 감독
- 19:00 CGV부천 무브먼트 - HeMeets

## 표지사진 오계욱

발행인 김종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혜지  
객원기자 김수빈 김은솔 이호준  
사진 오계욱 권영랑  
디자인 김은 김지원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씨네21> 구독문의  
**1566-9595**



## 크리피: 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

**CREEPY**

구로사와 기요시 | 일본 | 2016년 | 130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사이코패스를 통해 돌아보는  
일본 현대사회의 민낯.  
카가와 데루유키의 괴기한  
얼굴이 담아낸  
정글정글한 풍경.](#)

8명을 죽인 연쇄살인마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신만의 도덕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한다. 살인마의 서내 인질극 난동 후, 책임을 통감한 다카쿠라는 현직 경찰에서 물러나 범죄심리학 교수로 살아가는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라는 질문을 안고 '도망 나왔지만' 정작 이 질문을 향한

본 게임은 다카쿠라의 집과 이웃에서 전개된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그는, 이사 온 집의 이웃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다. 왕래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기묘한 분위기와 함께, 특히 그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은 아픈 아내와 딸과 함께 살아가는 중년 남자 니시노다.

구로사와 기요시의 공포를 설명할 키워드로, 이 작품 이후에는 'Creepy'라는 말을 추가해도 좋겠다. 음침하고 기분 나쁜 데다,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듯한 뜻을 내포한 이 단어가 주는 감흥은 공포 장르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의 작품 속 어둠과 두려움을 적확하게 집어낸다. 아내가 니시노에게 '희생'당할 위기의 순간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카쿠라는 6년 전 일가족 행방불명 사건 후 남은 유일한 가족인 중학생 소녀를 조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파헤치려 애쓰는데, 마치 이 둘이 사건의 발생과 원인처럼 묘사되는 특이한 전개다. 이웃에 함께하는 사이코패스의 얼굴을 통해 현대 일본사회의 병폐를 신랄하게 드러낸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과 호흡을 맞춘 니시지마 히데토시가 다카쿠라 역으로 다시 감독과 조우한다. 이웃에게 '괴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기괴한 니시노의 얼굴을 그려낸 카가와 데루유키의 연기가 특히 인상적이다. 또 딸 역의 가와구치 하루나의 서늘한 이미지도 기억할 만하다. 제15회 일본 미스터리문학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마에카와 유타카의 소설 <크리피>가 원작으로, '전개를 예측할 수 없는 실로 기분 나쁜 이야기'라는 심사평으로 호평 받은 작품이다.

이화정



## 더 소노 시온

**THE SION SONG**

소노 시온 | 일본 | 2016년 | 97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 전복된 두려움

**UPTAKE FEAR**

아르만도 폰세카, 카멜 푸르만 | 브라질 | 2016년 | 82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장르적 패감과  
메시지의 완벽한 조화.](#)

누구에게도 인정 받지 못하는 마쿠스(리카르도 겔리)는 어느 날 강도가 홀리고 간 칼 한 자루를 손에 넣게 된다.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기로 마음먹은 그는 잠재돼 있던 어두운 본성과 마주하게 되고 통제 불가능한 살육에 돌입한다. 현실과 환상을 분간하지 못한 채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마쿠스는 악마의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마쿠스에 무조건 분노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억압된 삶이 우리의 초상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영화의 결말은 더욱 섬뜩하다. 초자아에 잠식된 마쿠스가 폭주 끝에 벌이는 행동은 충격과 연민을 동시에 전한다. <전복된 두려움>은 핏빛 카타르시스 속에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명민한 영화다. 영화감독 아르만도 폰세카와 비주얼 아티스트, 특수효과 작업 등으로 활동해온 카멜 푸르만의 공동연출작이다.

이호준 객원기자

[진짜 소노 시온을  
만나고 싶다면.](#)

흔히 소노 시온은 자극적인 표현에 천착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력과 외설은 소노 시온의 도구일 뿐 목표가 아니다. 3.11 대지진 사태 이후 차츰히 무너진 일본 사회에서 끝내 희망을 건져 올린 <두더지>(2011), <희망의 나라>(2012)에 주목하자. <더 소노 시온>은 시인, 록밴드 보컬, 전위 예술가 등으로 활동하는 인간 소노 시온을 따라가는, 소노 시온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오해와 편견으로 점철된 그의 이미지를 희석시킨 다음 새로운 이미지의 정립을 제시하는 시도다. 더불어 소노 시온의 영화 현장도 꼼꼼히 담는다. 현장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연출 방식에는 그의 철학과 인생관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아내인 배우 카구라자카 메구미와 <두더지>, <도쿄 드라이브>(2014)에서 함께 작업했던 배우 쇼메 타니 쇼타 등의 증언을 통해 인간 소노 시온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아들인 오시마 아라타가 연출을 맡았다.

이호준 객원기자



## 라이브 프롬 울란바토르

**LIVE FROM UB**

로렌 넵 | 몽골 | 2015년 | 82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몽골 대중음악의  
진수를 경험.](#)

<라이브 프롬 울란바토르>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몽골 대중음악의 변천사를 통해 시대상의 변화를 담아내는 다큐멘터리다.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풍경과 대중들의 생활상도 함께 담긴다.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 국가였던 몽골은 개방의 시대로 들어선다. 빠른 속도로 서구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지만 대중음악인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노래에 '몽골적'인 요소를 녹여내며 전통을 지켜나간다. 청년 록 그룹 모하닉은 오래된 사원, 드넓은 초원에서 새 앨범을 녹음하며 대자연의 기운을 음악에 녹여내고자 한다. 영적인 기운 충만한 사운드 트랙과 몽골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다소 낯선 몽골의 대중음악과 사회상을 만날 수 있다. 상당수 국가에서 대중문화는 서구의 것에 잠식돼 버린 현재, 정체성을 견지해나가는 음악인들의 모습이 경외심을 자아낸다.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고찰을 동반하는 음악 다큐멘터리다.

김수빈 객원기자

## 石井岳龍

《금붕어, 여자》이시이 가쿠류 감독

## 나선형의 드릴처럼

일본영화에 해박한 이들에게도 '이시이 가쿠류'란 이름은 낯설 수 있다. <고교 대패닉>(1976), <역분사가족>(1986)의 도발적인 에너지로 일본영화계에 파란을 불러온 이시이 소고 감독은 몇 해 전 이시이 가쿠류로 이름을 개명 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직접 만나본 이시이 가쿠류 감독은 차분하고 정적인 인상이었다. 신작 <금붕어, 여자>는 죽음을 앞둔 노작가가 상상 속의 금붕어를 통해 억눌린 욕망을 분출하는 이야기다. 문득 죽음이 드리워진 에로티시즘의 정적인 화면이 지금의 이시이 가쿠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시이 가쿠류로 개명을 했다. 필모그래피를 못 찾아 당황하는 사람도 있더라.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예전 이름에 싫증을 느껴서 바꿨다. 일본에서는 개명을 하는 것에 대해 별 거리낌이 없다. 내가 존경하는 카츠시카 호쿠사이(에도시대 우키요에 화가)도 이름을 여러 번 바꿨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간다는 정도의 기분 전환이랄까.

중전과는 다른 색깔을 영화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다음 스테이지인가.

아니다. 나는 매년 다른 영화를 만들어왔고 변화는 내게 일상적인 것이다. 이미 해왔던 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 매 순간 거듭 태어나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스스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음 스테이지'다.

<금붕어, 여자>는 다이쇼 시대 시인 무로 사이세이의 말년의 소설 <꿈의 정취>(1959)를 각색했다.

원작을 영화화하는 건 내게 흔치 않은 경우이기에 각별한 느낌이다. 다만 원작이 있다 해도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작업할 때와 근본적인 부분에선 다르지 않다. 스스로 영상으로 구현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작품을 말지 않는다. 무로 사이세이는 알고 있었지만 <꿈의 정취>는 연출 의뢰를 받고 읽었다. 원작은 노작가와 금붕어가 대화만 하는 설정이었는데, 각본가가 무로 사이세이의 인생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캐릭터에 살을 붙였다. 덕분에 픽션이긴 하지만 무로 사이세이의 생, 가치관, 사고가 충실히 반영됐다.

금붕어 아카코 역에 니카이도 후미, 노작가 역에 오스기 렌 등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연출의 절반은 캐스팅에서 완성된다. 금붕어를 누가 표현할 수 있을지가 내게도 큰 수수께끼였다. 고교 시절 원작 소설을 재미있게 읽고 꼭 연기해보고 싶었다는 니카이도 후미의 인터뷰를 보고 출연을 제안했고 흔쾌히 응



해줬다. 사실상 그 캐스팅을 계기로 시작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니카이도를 처음 보는 날 정말 금붕어가 눈앞에서 헤엄을 치는 것 같았다.

아카코와 노작가가 함께 춤을 추는 마지막 장면은 말 그대로 환상적이다.

중간에 나오는 금붕어의 춤은 안무가가 찢지만 엔딩의 꽤 긴 호흡의 춤은 니카이도 후미와 오스기 렌이 각자 만들어왔다. 니카이도 후미는 이 역할을 위해 정말 많은 걸 준비해줬고 엔딩의 춤도 그 중 하나다.

영화의 전반이 정육의 표출이라면 후반은 외로움, 두려움이 두드러진다.

이 이야기에 끌린 건 인간의 업, 인생의 쓸쓸함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작가가 만들어낸 환상이 작가에게 반역을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노작가는 약한 부분을 감추고 내면을 억누르는 데 익숙한 대표적인 일본 남자다. 환상으로 점철된 기묘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억눌린 욕망, 죽음에의 공포 등 매우 보편적인 감정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전작 <살아있는 것은 없는가>(2012)는 물론 이번 영화도 치열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당신에게 영화란 무엇인가.

뭔가를 하나 만들면 다음에는 전혀 다른 걸 만들고 싶어진다. <금붕어, 여자>가 정적이었으니 다음엔 역동적인 걸 하는 식이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양 극단을 오가다보면 내가 축적해 온 영화적 요소들이 마치 나선형의 드릴처럼 한군데 집결해 상승하는 걸 느낀다. 언젠가는 그 모든 걸 한 영화에 담아내고 싶다. 또 하나, 살아가면서 망각하는 것들이 있다. 영화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유용한 도구다. 꿈꾸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도 좋겠다. 가능하면 예술영화라는 카테고리 뿐 아니라 대중오락적으로 친숙한 방식으로 그런 꿈의 순간들을 표현해보고 싶다.

글 송경원 · 사진 오계욱

## “아이러니한 자기 성찰”

감독 장근석의 판타스틱 오픈 토크

부천에 '근쟁'이 났다! 장근석의 판타스틱 오픈 토크가 7월26일 오후 6시 30분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의 오픈 토크는 배우가 아닌 영화 감독 장근석을 위해 진행됐다. 장근석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재학 중 찍은 단편 <위대한유산>으로 올해 부천을 찾았다. 장근석은 “감독으로 인사드린다. 두 번째 연출작으로 영화제에 초청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오픈 토크의 문을 열었다. 장근석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니?>(2012)에 이어 두 번째로 연출한 <위대한유산>은 빛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 준석(노형욱)이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을 그린다.

토크를 진행한 <씨네21> 이화정 기자가 “직접 출연까지 했던 지난 연출작

과 달리 이번에는 철저히 카메라 뒤에 있었다”고 하자 장근석은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만 연출에 신경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를 만들며 내가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다. 현대인들이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로 많이들 살고 있는데 거기서 오는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아들의 안타까움을 담백한 톤으로 담아보려고 했다”는 연출의 변도 밝혔다. 덧붙여 이화정 기자가 “철없는 아들의 성장담으로도 읽힌다”고 말하자 장근석은 “시간적 압박 속에서 아들은 점점 아버지의 건강보다 자신의 욕심에 더 집중한다. 영화는 아이러니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날 마루광장에서 <위대한유산>과 '감독 장근석'에 호기심을 보인 관객들이 장근석을 보다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장근석은 배우 또는 감독으로서 자신의 예술관을 드러내는 방식에 관해 성심껏 토크에 임했고 관객들은 그의 진지함에 열성과 호의를 담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장근석은 “오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다. 앞으로도 부족함을 채우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배우가 되겠다. 감독으로서 한 편 한 편 신중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로 토크를 마무리했다.

글 윤혜지 · 사진 권영탕



내 어머니가 주신 선물

〈마냥 비링의 크리스마스〉 카를 조셉 파파 감독

로토스코핑 기법의 애니메이션 〈마냥 비링의 크리스마스〉는 유방암에 걸린 시한부 환자 인 어머니 마냥 비링의 이야기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후 슬퍼할 딸의 모습이 죽음보다 더 걱정스럽다. 카를 조셉 파파 감독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돌아가시기 한달 전까지 암에 걸린 걸 숨기셨다”는 그의 어머니는 감독이 영화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본 고전영화의 우아한 장면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 〈사랑은 비를 타고〉(1952)가 내 인생의 영화다. 언젠가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게 꿈이다.” 처음부터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는 홈비디오 무비에 가까운 첫 장편 〈The Unforgetting〉(2014) 이후 ‘시네마 원’의 지원을 받아 애니메이션 〈마냥 비링의 크리스마스〉를 제작했다. “〈웨이킹 라이프〉(2000), 〈스캐너 다클리〉(2006) 등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작품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로토스코핑은 실사보다 심리적 여유를 주는 효과적인 기법이다.” 죽음과 삶, 환상과 현실, 실사와 애니메이션의 경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순간들의 의미를 담은 〈마냥 비링의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해외 영화제 초청은 물론 해외에 온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그는 새로운 경험에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어머니로 인해 영화를 사랑했고, 어머니에게 바치고 싶어 이번 작품을 만들었다. 이 순간의 경험들이 어머니의 선물인 것 같다.” 글 송경원 · 사진 권영량

음악으로 관객을 몽골에 데려가고 싶다

〈라이브 프롬 울란바토르〉 밴드 모하닉

밴드 모하닉은 에네렐트, 다바, 조트, 바기, 네 명의 멤버로 구성된 몽골의 젊은 록 밴드다. 모두 1988년생 동갑내기로, 늦게 합류한 바기를 제외한 세 명은 중학교 때부터 함께 밴드를 시작했다. 이들은 몽골 대중음악의 현재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라이브 프롬 울란바토르〉에 출연하며 BIFAN에 오게 됐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 “길고 어색했던 레드카펫 행진”과 “무한 리필 삼겹살집” 얘기를 즐겁게 늘어놓는 모습이 영락없는 소년들이다. 그렇지만 밴드 모하닉이 만드는 음악과 무대는 더없이 진지하고 경건한 느낌마저 준다.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이들은 두 번째 앨범을 스튜디오가 아닌 몽골의 300년 된 사원 아 마르바스칼랑트에서 녹음했다.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좋았다. 자연에서 녹음을 했다기 보다 자연과 맞닿아 있는 느낌이었다.”(다바) 7월 23일에는 잔디광장에서 앨범 속 음악들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음악을 통해 당신을 몽골로 데려다 놓고 싶다.”(에네렐트)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정체성 뚜렷한 그들의 음악이 품은 기운은 생생히 전해진다. “몽골은 개발 도상국이다. 현대화에 급급하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야 우리의 소리를 찾는 과정에 있다. 모하닉 또한 아직 어떤 음악을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 당신이 우리 음악에서 받은 느낌이 바로 모하닉이다.”(에네렐트) 글 김수빈 객원기자 · 사진 권영량



조트, 바기, 다바, 에네렐트(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장르영화 전문가를 육성하다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환상영화학교’ 프로그램

7월25일 오후 2시, 고려호텔 5층이 아시아 각국에서 모여든 젊은 영화인들로 북적였다. 특수분장, 시각효과, 영화 연출 등 다방면으로 활약 중인 니시무라 요시히로 감독의 강연 소식 때문이다. 〈머신 걸〉(2008), 〈도쿄 잔혹 경찰〉(2008) 등 참여작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감독이 강사로 나선 ‘영화제작의 삶’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니시무라 감독은 참석자들에게 청년 시절 경험담을 가감 없이 들려줬다.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분장 시연 시간. 〈진격의 거인 파트1〉(2015)에 썼던 입체 기동장치를 체험하고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특수 분장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시종일관 열광적이었다. 감독의 표현에 의하면 “참석자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웃음)고. 이번 강의는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AFF)에서 주관하는 ‘환상영화학교’ 프로그램 중 하나다. 환상영화학교는 장르영화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08년 첫 해 액션 전문 강좌를 연 이후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영화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아시아 필름 메이커스 랩’이라는 이름으로 영화 제작 필수 과정부터 최근 이슈까지 다루며 탄탄한 커리큘럼을 유지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강사진 또한 환상영화학교의 자랑. 니시무라 요시히로 감독을 포함해 〈한곡〉(2008) 시나리오 작가 빈센트 고, 선댄스 영화제 프로그래머 찰리 레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지난 7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흥미로운 강의와 포럼이 연달아 열리고 있다. 중국에서 온 감독 지망생 리우이는 “커리큘럼이 탄탄하다.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경험담 모두 무척 실용적이다”고 말했으며, 중국에서 감독으로 활동 중인 덩 페이는 “시나리오 작성, 영화 제작 등 다양한 방면을 알려준다.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합작해볼 수 있어 좋다”고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밝혔다. 환상영화학교는 28일까지 계속된다. 글 김수빈 객원기자 · 사진 오계욱



내 삶을 들려주고 싶었다

환상영화학교 멘토 니시무라 요시히로 감독

매번 작품을 가지고 BIFAN에 오다가 이번에는 환상영화학교 멘토로 참여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멘토 제의가 들어와 반가운 마음으로 하게 됐다. 예전부터 특수 분장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을 응원하고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감독으로 올 때처럼 영화 상영 전에 긴장할 일이 없어 좋다. (웃음) 수업을 진행한 소감은,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했다. 내 작품을 본 학생도 많았고 특수분장이나 VFX 등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 마지막엔 질문 공세가 이어져서 정해진 시간을 넘기고 마쳤다. 감독과 멘토로 모두 참여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다 좋다. 강사로 온 이유는, 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돌아야 할 나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알려줘야 할 시기라고 판단해서다. 최근 작업 중인 작품은 무엇인가. 특수 조형 프로듀서로 참여한 안노 히데아키 감독의 〈신 고질라〉가 다음 주에 공개된다. 내가 연출한 작품은 완성된 상태고 내년 부천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환상영화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절대 그만 뒤서는 안 될 것. 두 번째, 괴로워도 잊어버릴 것. 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었던 작업이라도 끝나면 잊어버린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계속 반복하면 세 번째, 미래가 찾아올 거다.

FEATURE

## SCREEN-X Continues Its Emergence into Cinematic Storytelling

Screen-X, the technology that allows 270 degrees viewing by utilizing the additional space on each side of the screen and left and right walls of the cinema made possible

by optimizing multi-projection mapping inside the theater strives for audiences to be immersed in a movie. As a part of BIFAN's push on new media, 6 Screen-X purposed short films were on display in one section of the Fantastic Short Films program. The films included "Ghost Whale" directed by CHOI Yang-Hyun, "Fangs" directed by SHIN Jong-Hun, "Escape" directed by SHIM Sou-Yun (girl), "Midnight Taxi" directed by KWON Yang-Houn, "Open Your Eyes" directed by PARK Yong-Sik and "The Pulley by Steven Kwang" Directed by HA Myung-Mi (girl). The high budget shorts were entertaining and displayed more of what can be achieved with Screen X as a story telling format as well as showcasing great talents such famed actress JO Eun Ji (Fangs) and renowned actor KWON Hae-Hyo (Midnight Taxi). The 6 directors had much to say on the state of Screen-X filmmaking and it's clear that for all filmmakers that the process has been a growing experience that others can learn from.

The majority of directors felt that shooting Screen X was challenging yet educational and having had time to reflect, all are keen to make features purposed for Screen-X. Director HA Myung Mi commented that "... I

put a lot of effort into making the story board and what I thought about became quite different when it came to shooting and I also felt a lot of limitations whilst making the film." The use of 3 cameras and 3 screens is an area that filmmakers need to adjust to as highlighted by director SHIM Sou-Yun: "... the movement from the 3 cameras can get quite nauseous so I think I had to make some concessions, we decided to use one camera and then we expanded and cut the vertical sides. What we found is our resolution was a little worse than other films as we had to expand our resolution. A key point was not to make the movie dizzying as a chase film." Fellow director KWON Yang Houn stated that "... trembling was an important factor as the 3 cameras are quite heavy there's not enough weight to hold it up well. If it shakes too much it makes you nauseous so I tried to stabilize it. The technical staff helped a lot with that." Other challenges include budgeting, one producer commenting that depending on what you do it can be 30 to 100% more expensive than a 2D film ... If you come with a lot of ideas you can make it more economical ..."

Despite all these challenges the directors all



<Midnight Taxi>

felt they were now ready for a feature film in Screen X format but would like to see some standardization through Screen-X cinemas as various cinemas had differing projector systems and various lengths in terms of front screen and side walls resulting in distorting images via depth and dimension. It was clear that for all filmmakers and crew members the filming process of Screen-X was a huge learning curve. SHIM Sou-Yun echoed the feelings of all the directors "It's a different type of film making and I suffered but I don't think I'm not scared of it any more. I've learned a lot of lessons and for my next screen X project I will try to put maximize my story layout over the 3 screens. I'm motivated to do more.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Screen X I think it can improve a lot. What rang clear throughout all the filmmakers is that Screen-X is a unique way to express a cinematic story. As more filmmakers make more content and more lessons are learned along with improvements in technology more filmmakers the experience for audiences will only get better. And if the high quality of these short films are anything to go by the future cannot arrive soon enough.

Chocoshrek

REVIEW

## Mermaids, Music, and Murder: The Lure



<The Lure>

Long before their disneyfication into winsome princesses, mermaids were a source of absolute terror for those at sea. Enchanting men with their hypnotic songs and sex appeal, the sirens would drag their prey under the waves as they smiled, a mythology developed further in Hans Christian Anderson's seminal 1837 tale *The Little Mermaid*. Polish director Agnieszka Smoczyńska twists the inspiration from such sources into a highly creative new direction with *The Lure*, a bizarrely fascinating horror-musical-romantic-fairytale fantasy.

When mermaid sisters Golden (Michalina Olszanska) and Silver (Marta Mazurek) are befriended by musicians, they quickly become the main attractions at a seedy gentleman's club. Yet while they enjoy performing to the crowds, Golden can't help but feast on the locals while Silver falls in love with a guitarist, a dangerous prospect given that she will become sea foam unless they marry.

*The Lure* is an incredibly unique experience, one that's brimming with twisted ideas and innovative sequences from beginning to end. The mermaids themselves are stunningly realised as cannibalistic eel-like temptresses who communicate via sonar, spending much their screen time naked as they are exploited for their exoticism. Combined with the impressively constructed drab locations that channel communist-era Poland alongside poverty-stricken grotesque club patrons, the atmosphere generated is captivating in its unpleasantness forcing audiences to question just who the monsters are.

A wildly inventive dark fairytale, *The Lure* is a visual treat and an inspired genre miss-mash quite unlike anything else in cinemas, likely to develop a reputation as a modern cult favorite.

Simon McEnteggart

INTERVIEW

## KEN and KAZU: Director and Actors Interview

Screening in BIFANS World Cinema Blue program, winner of the 'Japanese Cinema Splash Best Film' award at the 2015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en and Kazu" directed by Hiroshi Shoji and starring Shinsuke Kato (Ken) and Katsuya Maiguma (Kazu) had the following to share with us before its cinema release in Japan July 30th.

How did you come up with the story? What or who influences you?

Hiroshi Shoji: As for the screenplay, I wanted to come up with a universal story. I was influenced a lot by Korean films, the strength of Korean film is story because it can be related to any person in the world so I was highly influenced by Korean film and that was delivered into my film. I was influenced by many films including *The Town* and *Training Day*. Director BONG Joon Ho is also a major influence. I really enjoy his films.

Was it difficult to connect to your bad guy characters?

Katsuya Maiguma: Personally I'm a very good guy not a bad guy at all so it was very challenging for me so every night I punched my pillow.

Shinsuke Kato: In my case I'm a natural born bad guy so it was easier for me. For my character and other characters of course they're all bad guys but I believe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eir lives and their choices and they're just trying to live their own lives. That was how we viewed their backgrounds to understand our characters.

Why did you choose to use close ups a lot in the film and are any of the scenes from your short film?

Hiroshi Shoji: Actually there are some scenes that reflect my own life in the film. When I was younger, I used to follow other people with a sword in my hand so I guess my youth was kind of wild. I wanted to deliver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directly so one of the tools for that is to use close ups.

Ken and Kazu is an independent gangster drama worth watching. The director and actors would like to thank BIFAN and Korea for its support.

Chocoshrek

# SCHEDULE

영화명 원제 | 등급 | GV | 예매코드 | 극장

**1회차** 대희임문 The Wonderful Wedding | 11:30 | ㉔ | 601 | SS 킹나 레수안 일대기 King Naresuan 6 | 11:50 | ㉔ | 602 | FC 캔터빌의 유령 The Cartville Ghost | 11:50 | ㉔ | 603 | HYU2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 11:30 | ㉔ | GV | 604 | HYU4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 11:30 | ㉔ | GV | 605 | HYU5 내 친구 아부벨레 Abulele | 11:50 | ㉔ | 606 | HYU6 꺼져가는 불씨에 대한 매우 사소한 삶 Alipato - The Very Brief Life of an Ember | 11:30 | ㉔ | GV | 607 | HYU7 도니 다코+할로우 씨 사건의 진실 Donnie Darko+The Facts in the Case of Mister Hollow | 11:50 | ㉔ | 608 | HYU8 **2회차** 싱글 Single | 14:30 | ㉔ | 609 | SS 스위스 아미 맨 Swiss Army Man | 14:30 | ㉔ | 647 | CH 파코와 마법 동화책 Paco and the Magical Book | 14:50 | ㉔ | 611 | FC 내부자들 Inside Men | 14:50 | ㉔ | 612 | HYU2 도성풍운2 From Vegas to Macau II | 14:30 | ㉔ | 613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 14:30 | ㉔ | GV | 614 | HYU4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 14:30 | ㉔ | GV | 615 | HYU5 어둠의 여인 Under the Shadow | 14:50 | ㉔ | GV | 616 | HYU6 소곤소곤 별 The Whispering Star | 14:30 | ㉔ | 617 | HYU7 휘귀전쟁 Chongqing Hot Pot | 14:50 | ㉔ | 618 | HYU8 패트와 매트 Pat & Mat | 14:30 | ㉔ | 619 | BST3 숲 The Forest | 14:30 | ㉔ | 620 | BST4 배드 캣 Bad Cat | 14:30 | ㉔ | 621 | BST6 몽상가 The Dreamer | 14:00 | ㉔ | 1601 | OA 일어나, 김광석 Who Killed Kim Kwang-seek? | 14:00 | ㉔ | 1602 | SH **3회차** 미녀와 야수 Beauty and the Bestie | 17:30 | ㉔ | 622 | SS 지구를 지켜라+살인의 막장: 송가락 살인마 Save the Green Planet+The Horribly Slow Murderer with the Extremely Inefficient Weapon | 17:20 | ㉔ | GV | 623 | CH 아래층 사람들 The Tenants Downstairs | 17:50 | ㉔ | GV | 625 | HYU2 테라포마스 Terra Formers | 17:30 | ㉔ | 626 |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 17:30 | ㉔ | GV | 627 | HYU4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The Kirishima Thing | 17:30 | ㉔ | 628 | HYU5 홀금보의 보디가드 The Bodyguard | 17:50 | ㉔ | 629 | HYU6 더 소노 시온 The Sion Sono | 17:30 | ㉔ | 630 | HYU7 무에타이 몽키 트윈스 Monkey Twins | 17:50 | ㉔ | 631 | HYU8 셸 콜렉터 The Shell Collector | 17:30 | ㉔ | GV | 632 | BST3 전복된 두려움 Uptake Fear | 17:30 | ㉔ | 633 | BST4 하늘도 아닌, 땅도 아닌 The Wakhan Front | 17:30 | ㉔ | 634 | BST6 **4회차** 녹차의 맛+대동단결 The Taste of Tea+United We Stand | 20:30 | ㉔ | 635 | CH 부활 Re:Born | 20:50 | ㉔ | GV | 636 | FC 출구는 없다 Rupture | 20:50 | ㉔ | 637 | HYU2 크리파: 일가족 연쇄 살해 사건 Creepy | 20:30 | ㉔ | 638 | HYU3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 20:30 | ㉔ | GV | 639 | HYU4 셸리 Shelley | 20:30 | ㉔ | GV | 640 | HYU5 도성풍운 3 From Vegas to Macau III | 20:50 | ㉔ | 641 | HYU6 라이브 프롬 울란바토르 Live from UB | 20:30 | ㉔ | 642 | HYU7 사랑은 부영부영 | 20:50 | ㉔ | 643 | HYU8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 | 20:30 | ㉔ | 644 | BST3 다다다다 세븐틴 Dadadada Seventeen | 20:30 | ㉔ | GV | 645 | BST4 어둠의 파수꾼 Keeper of Darkness | 20:30 | ㉔ | 646 | BST6 굿 맨 A Good Man | 20:00 | ㉔ | 1603 | OA 맨하탄 녹턴 Manhattan Nocturne | 20:00 | ㉔ | 1604 | SH

**등급 Rate**  
 ㉔ 전체 관람가 General ㉔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㉔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㉔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㉔ 19세 이상 관람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SS 송내술안아트홀 CH 시청 어울마당 FC 시청 판타스틱 큐브 HYU2 CGV부천 2관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HYU8 CGV부천 8관 BST3 CGV부천역 3 BST4 CGV부천역 4 BST6 CGV부천역 6 KM 한국안화박물관 SH 소사구청 소향관 OA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상영일정은 영화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IFAN

## 상영시간을 놓치지 않게, 우리가 된다

서틀버스 안내 자원활동가 장수연



서틀버스 안내 담당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서틀버스를 이용하는 관객들에게 버스 노선이나 배차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승하차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원래 마케팅 팀 쪽으로 지원했는데 서틀버스 팀으로 들어가게 됐다.(웃음) 그래도 우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서비스직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 영화 관람을 마친 관객들이 서틀버스를 타기 위해 우르르 몰려올 때 보람을 느낀다. "영화제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일처럼 뿌듯하다.(웃음) 연일 날씨가 무덥다. 야외근로다 보니 더위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견딜만하지만 심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 교통체증 탓에 서틀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관객들은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초조함에 발을 동동 구른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잘못 같아 속상하다.

BIFAN을 찾는 관객들에게 팁을 주자면, 영화제는 축제라고 생각한다.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행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을 열고 만끽하길 바란다.

글 이호준 객원기자 · 사진 권영랑

# CINSTAGRAM



김은솔



VR 패널 토크 후 파티 현장. 기술을 통한 영화의 새로운 형식을 모색해 보는 시간. #물임의\_VR #배고프다\_같이\_먹자 #모두\_즐거요



오계옥



환상영화학교의 판타스틱 분장 수업 시간. 강사로 참석한 니시무라 요시히로 감독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특수효과 모델이 된 남종석 산업프로그램 전문위원. #기겁하지말자 #환상영화학교 #즉석포즈

# 데굴데굴~똑똑!

## 비밀♡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2016년 8월 1일 저녁 6시30분  
첫 방영!!

비밀♡비밀의  
**어그엔젤 쿠키밍**

©BANDA/TV TOKYO, COCOTAMA COMMITTEE

라이선스 문의: 김석현 차장 Tel: 070.7491.1560  
E-mail: scott@smg-h.com Mobile: 010.7179.2603

디즈니채널 2016년 8월 1일 첫 방영



# Liiv와 함께 새로운 생활로 로그인!

**쉽고 빠르게**  
**Liiv 미니 보내기**  
상대방의 전화번호만으로 간편송금(한도 30만원 이내)

**누구나 90% 환율우대**  
**Liiv 환전**  
환전 우대도 받고, 365일 누구나 쉽고 빠른 환전/해외송금

**스마트한 모임관리**  
**Liiv 모임**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경조사, 모임 알림 및 비용관리

**매력적인 할인혜택**  
**Liiv 선물하기**  
편리한 선물구매는 물론 할인 혜택으로 저렴하게

나만의 생활금융플랫폼  
**Liiv**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Liiv 앱을 다운 받으세요

※상기 환전서비스 내용은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휴업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제휴업체 연계서비스(Liiv선물하기, 교통/선불 충전 서비스 등)는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에게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